

SDI 2012년 서울경제 전망

2011. 12. 12 제104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 II. SDI 4/4분기 서울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조사
 - III. 2012년 서울경제 전망
 - IV. 시사점 및 정책제안
- 부록: 2011년 4/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2012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2.5%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 재정 건전성 문제 이후 확대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는 2012년이 고비가 될 전망이고, 미국경제 역시 고용 침체, 민간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경제도 내수 위축,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9%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2012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2.5%로 전망된다. 2011년 하반기 서울의 소비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에 비해 둔화된 대형소매점 판매액,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생산을 고려할 때 서울경제의 성장속도는 그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2011년 서울의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조사 결과 2011년 하반기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가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고용시장의 빠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와 기업 체감경기 모두 부정적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1년 4/4분기에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여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태도지수」가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생활형편지수」와 「소비지출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전반적인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기업의 주요 경영 실적지표와 전망지표가 모두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체감경기와 경기전망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서울의 제조업 부문의 경기전망이 상승세에서 하락 반전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서울산업의 경기둔화가 우려된다.

서울지역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 필요

2012년 수출 둔화에 따른 생산 감소와 가계부채 부담증가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이 전망된다. 따라서 2011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경제성장률에 비해 실질 체감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체감경기 악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경제 안정에 두고, 재정지출을 합리화하여 재정지출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정책으로 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I.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세계경제 저성장기조 유지

-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1년 대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경제전망(2011년 11월)'을 통해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1년보다 0.4%p 낮아진 3.4%로 제시
 - OECD의 전망치는 IMF가 전망한(2011년 9월) 4.0%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유럽과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
- 그리스 재정건전성 문제 이후 확대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는 2012년이 고비가 될 전망
 - 최근 유로존의 재정 통합논의 등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논의되고 있어 유럽의 재정위기가 2012년에는 진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그러나 독일의 국채발행이 실패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유럽 재정 위기의 불안요인은 상존
- 미국 경제 역시 고용문제, 주택가격 불안, 민간투자 심리 위축 등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2012년 더블딥 가능성 제기
 - 2011년 미국의 제조업·비제조업 생산지수 하락, 10월 신축 주택가격 연중 최저치 기록 등 주요 경제지표 악화
 - 고용지표 또한 부진하여 2012년에도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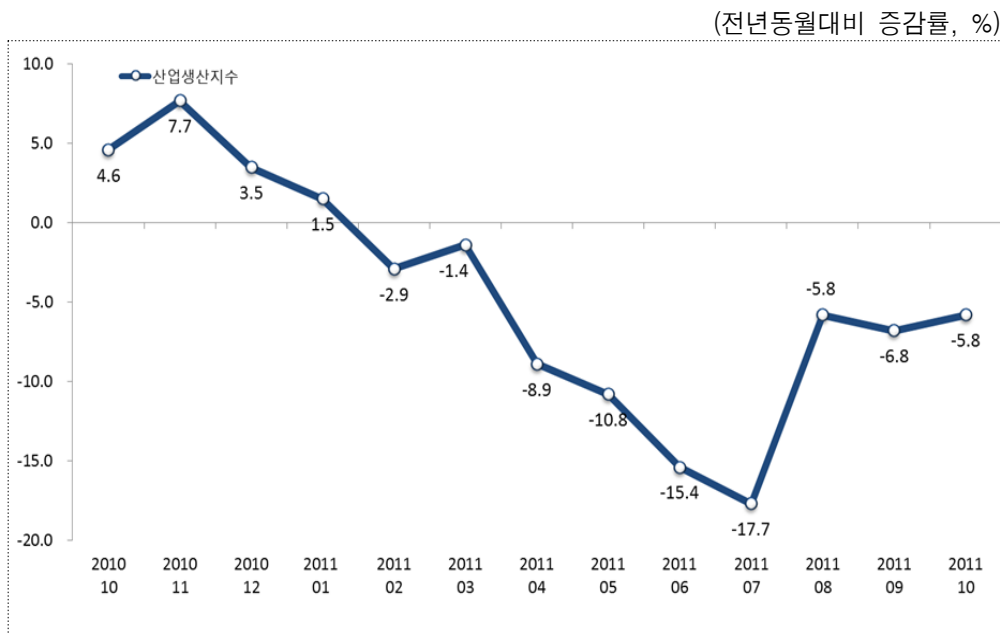
2012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수출둔화, 내수부진 전망

- 2012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2011년 대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자료에 의하면 2012년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9%로 2011년보다 0.1%p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연체율 상승 등 가계부채 확대로 2012년 큰 폭의 내수 증가는 어려울 전망
 - 취업자수 증가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는 고용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소비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내수가 큰 폭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
-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로 우리나라 수출은 둔화 전망
 - 2011년 우리나라 경기회복을 이끌던 수출 부문은 국제 원자재시장의 가격 안정에 따라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2012년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

최근 서울경제는 산업생산 침체, 소비와 고용은 보합세 유지

- 서울의 산업생산은 하락세가 완화되는 모습
 - 최근 소비재 생산 하락세는 안정되었지만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산업생산 감소세 유지

- 2011년 7월 전년동월대비 -17.7%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던 서울의 산업생산은 하락세가 완화되어 201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5.8% 기록
- 2011년 10월 소비재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하였지만 전월대비 하락폭 축소
- 산업생산에 선행하는 자본재 생산은 201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14.9% 감소, 중간재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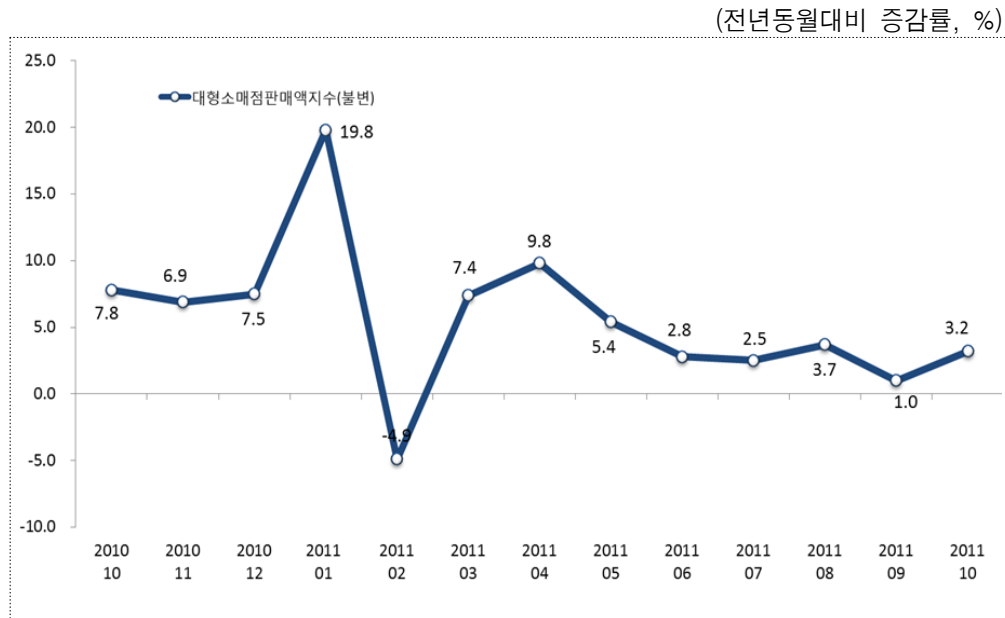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최근 5개월 평균 2%대 유지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1년 10월 전년동월 대비 3.2%로 낮은 성장률 유지
-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011년 상반기 1년간 평균 6.7% 증가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

-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액은 201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대형마트 판매액은 4.7% 증가하여 대형마트 위주로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 서울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은 201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17.7% 증가하여 상반기에 이어 증가세 유지
- 2011년 3/4분기 서울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동기대비 16.6% 증가하여 상반기 평균 13.8%보다 증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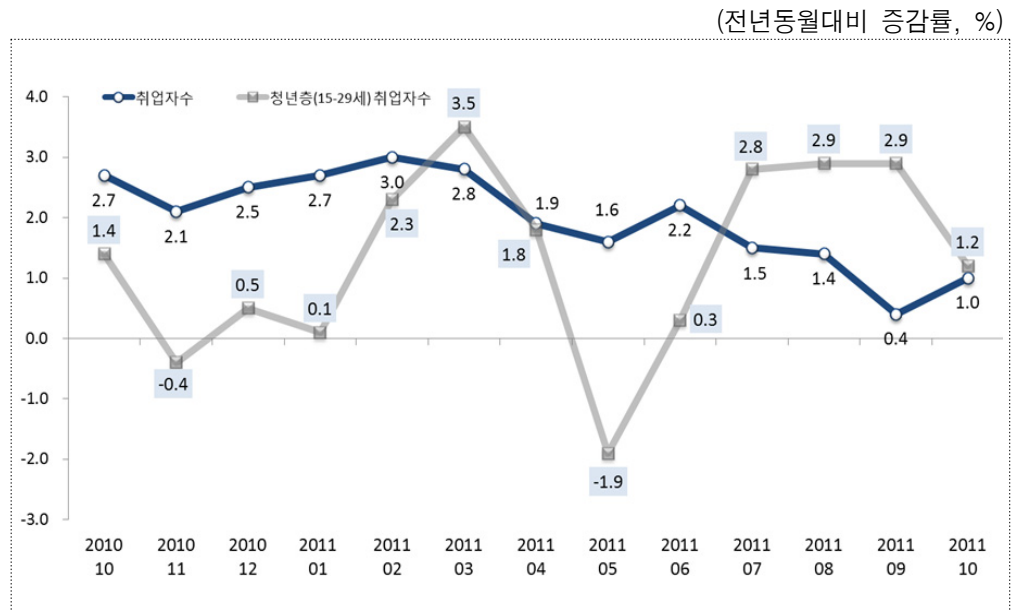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 서울의 고용사정은 큰 폭의 개선 없이 증가세 유지

- 2011년 10월 서울의 총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전국의 총 취업자수 증가율은 2.1%로 서울의 총 취업자수 증가율이 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
- 2011년 10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분기별로 살펴보면 2011년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9% 기록하여 2005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율은 전국의 0.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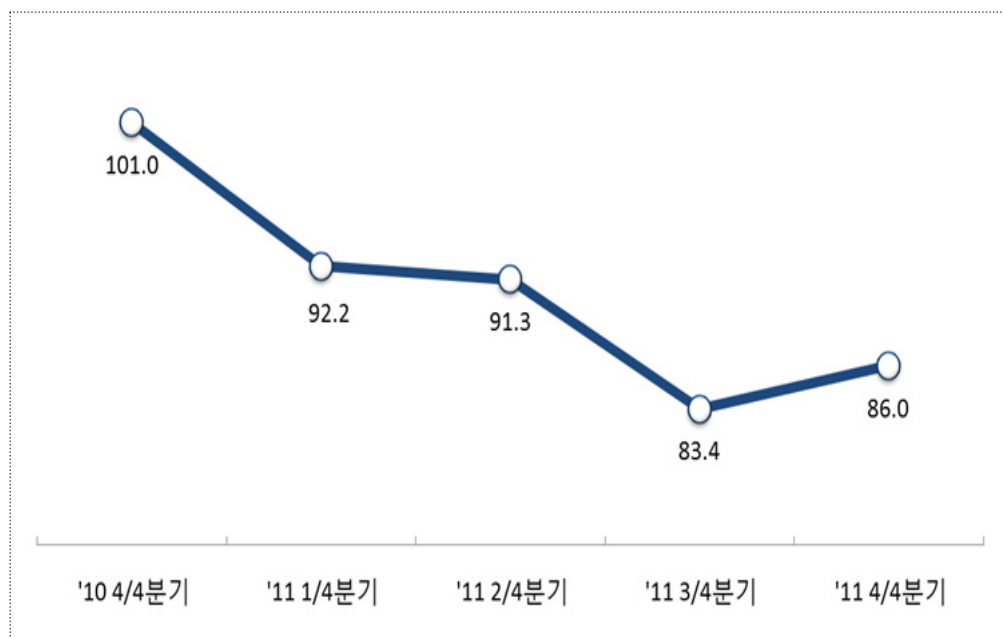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3] 서울의 취업자수

II. SDI 4/4분기 서울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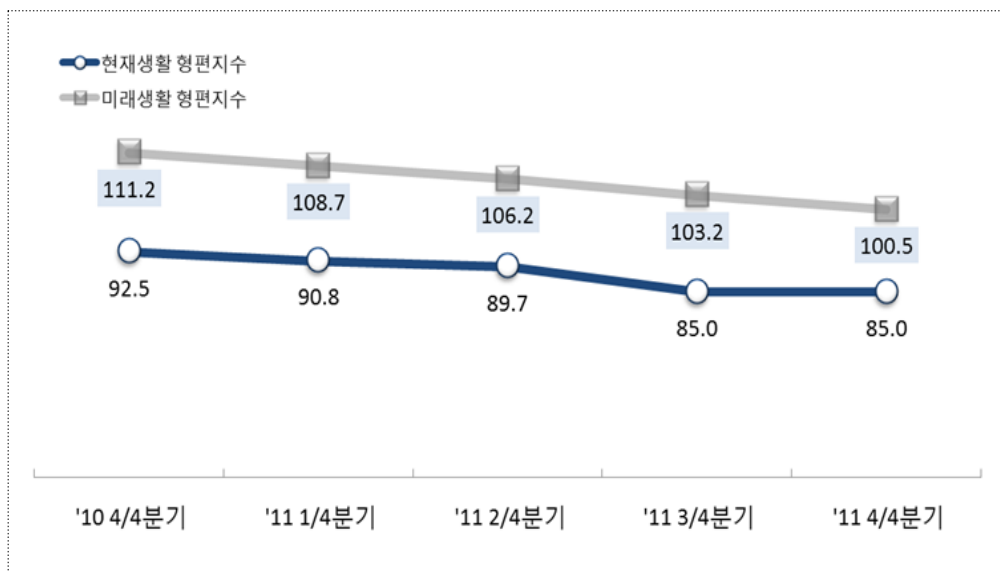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

-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4분기 연속 기준치(100) 하회
 - 서울시 가계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1년 3/4분기 83.4에서 4/4분기 86.0으로 2.6p 소폭 상승
 - 2010년 4/4분기 101.0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2011년 4/4분기에 상승 전환
 - 최근 산업생산, 소비, 고용 등의 경기지표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고,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되어 하락세가 진정된 것으로 해석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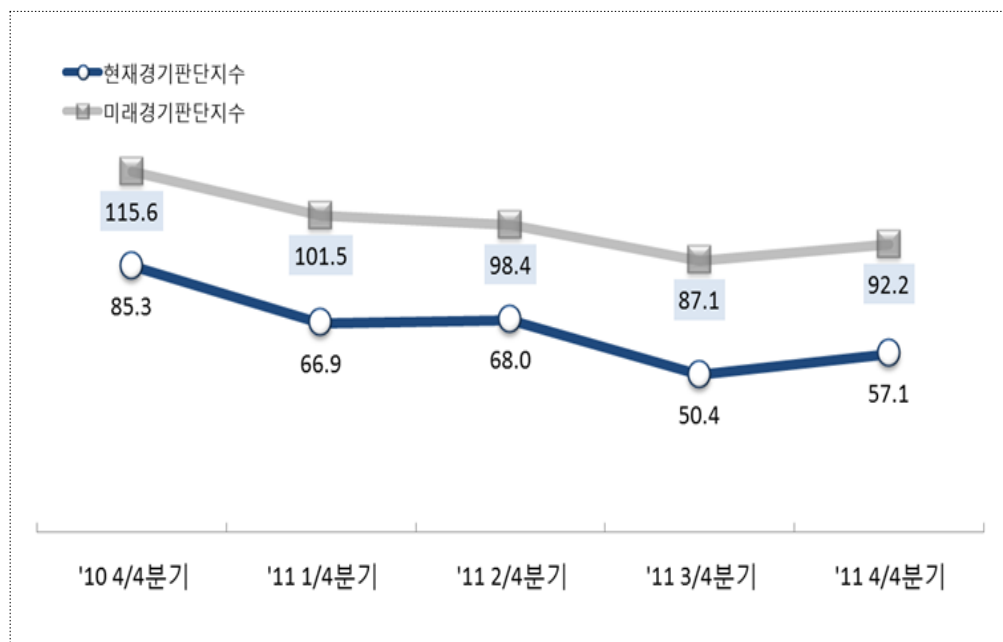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보험세를 기록하였으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
- 2011년 4/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보험인 85.0을 나타내고 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7p 하락한 100.5를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010년 4/4분기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기준치(100)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010년 4/4분기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는 기준치(100)를 하회하였으나 전분기대비 상승 반전
-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대비 6.7p 상승한 57.1을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현재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 2011년 4/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92.2로 전분기대비 5.1p 상승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으나 전분기대비 상승하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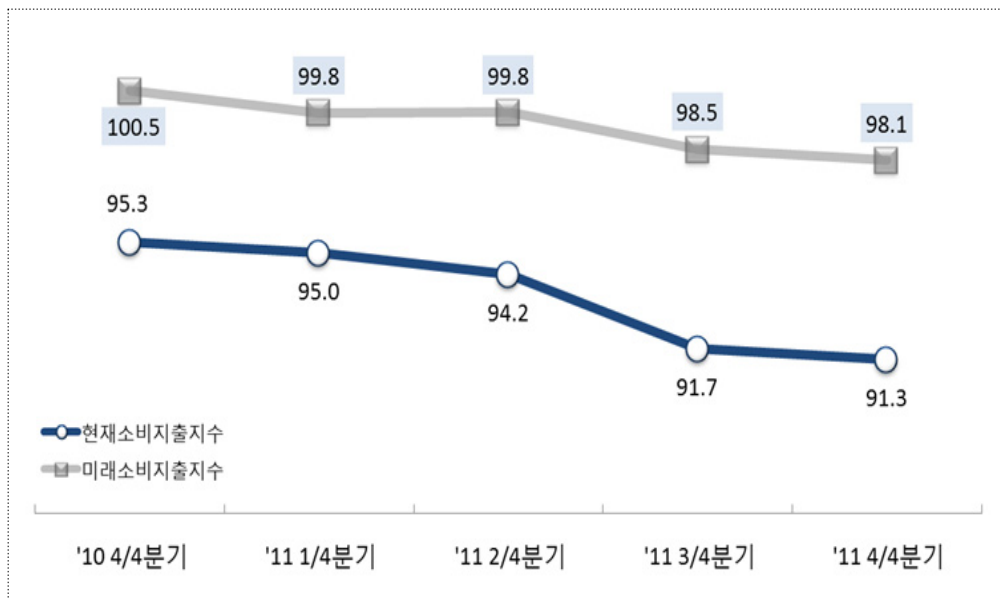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체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로 소비지출 주춤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2011년 3/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
- 2010년 4/4분기까지 개선되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011년 4/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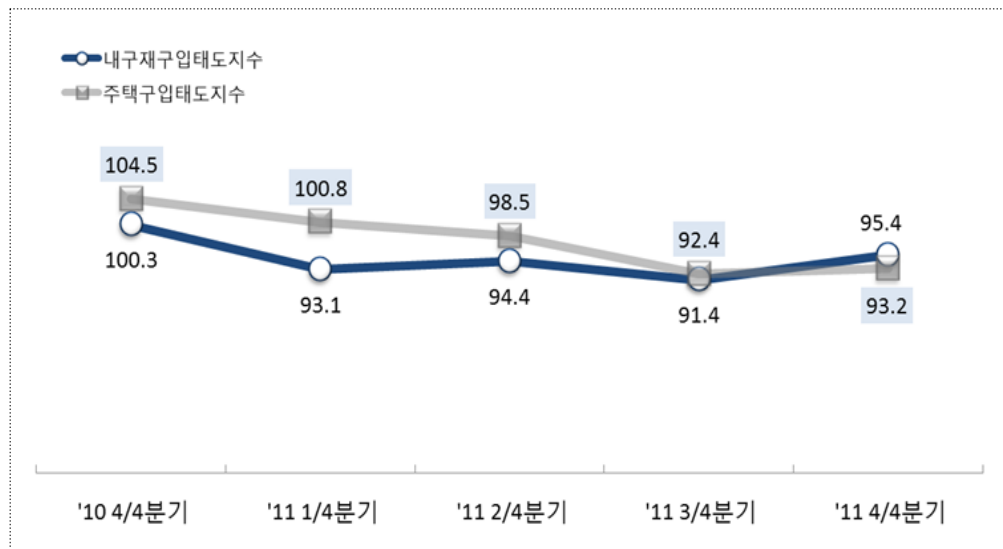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91.3을 기록
- 「미래소비지출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98.1을 기록
- 2010년 4/4분기 100.5를 기록한 이후 최근 4분기 평균 99.1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소비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조사 결과 '교육/문화비(115.0)', '교통/통신비(107.5)'는 지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7]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2011년 4/4분기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
- 2011년 4/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95.4로 전분기대비 4.0p 상승
- 2010년 4/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여전히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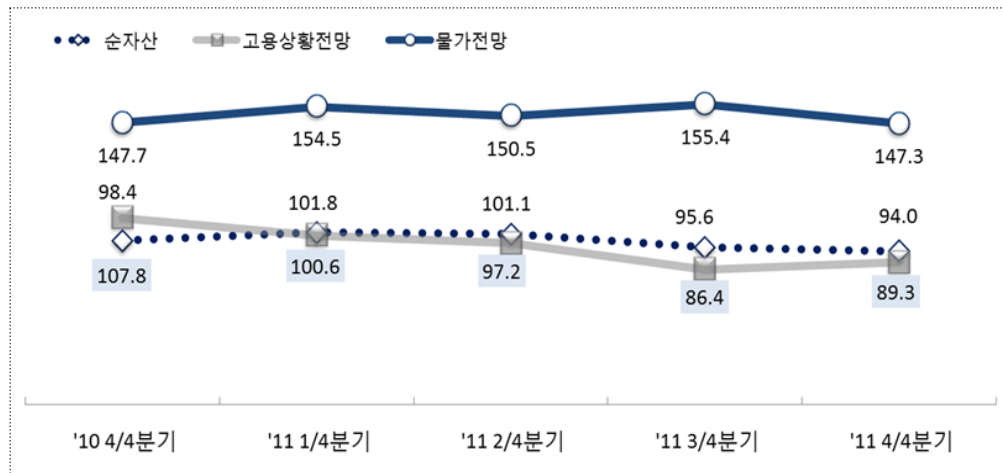
-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0.8p 상승한 93.2로 2010년 4/4분기 이후 지속되던 하락세가 다소 진정
- 「주택구입태도지수」가 3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서울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불투명



[그림 8]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 서울의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가운데 물가 불안심리는 다소 진정
 - 2011년 4/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1년 3/4분기 대비 2.9p 증가한 89.3으로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
 - 최근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 동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시민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
- 2011년 4/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대비 8.1p 하락한 147.3으로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가 다소 안정
 - 「물가예상지수」는 2011년 3/4분기에 155.4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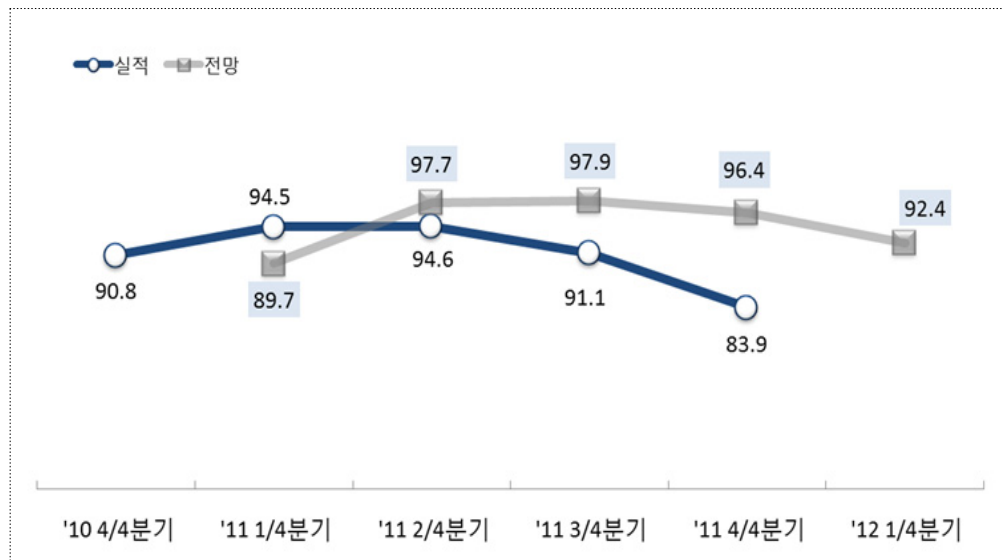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순자산지수'는 94.0으로 2010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으나 기준치(100)에 근접하고 있어 가계자산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조사



[그림 9] 서울의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예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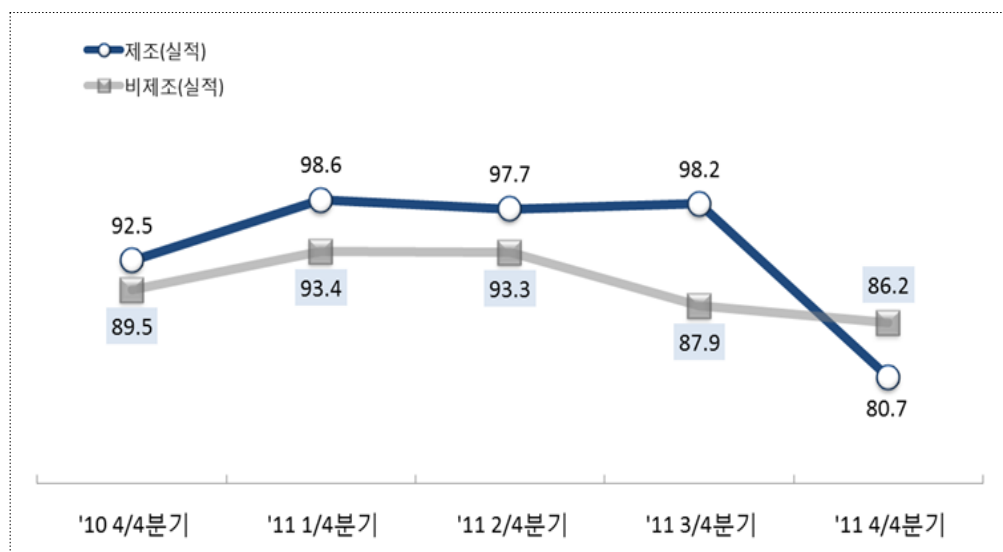
서울기업의 체감경기 및 향후 경기전망 모두 하락

- 2011년 4/4분기 서울기업의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7.2p 하락한 83.9,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4.0p 하락한 92.4를 기록
-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모두 하락하여 기업의 체감경기와 경기전망이 모두 비관적임을 시사
 - 2분기 연속 하락한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보다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 기업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
 - 향후 기업의 업황실적 전망을 나타내는 '업황전망지수'도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하락
 -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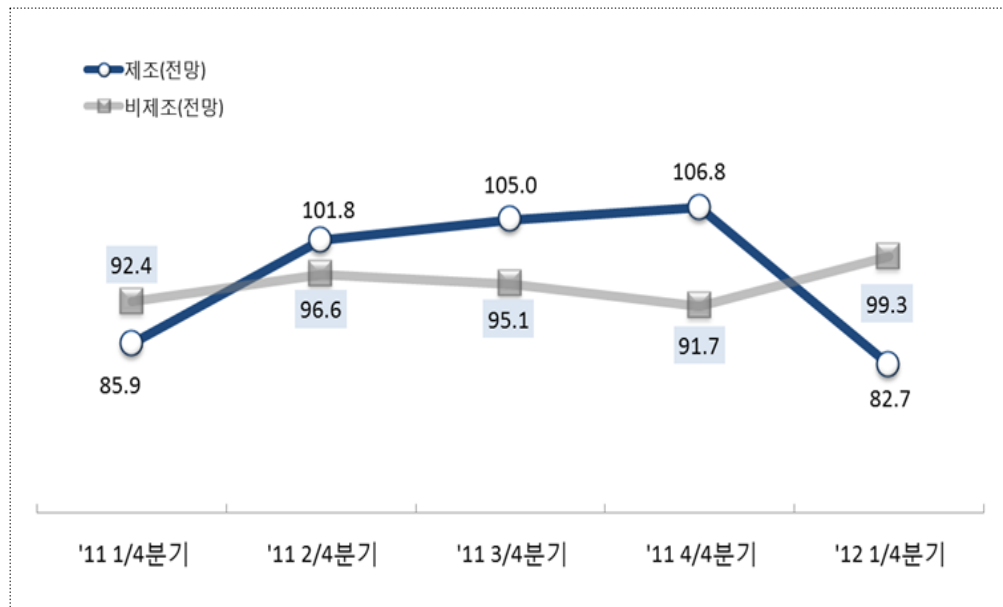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의 업황지수

- 2011년 4/4분기 서울의 「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
- 「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80.7로 전분기대비 17.5p 하락,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1.7p 하락한 86.2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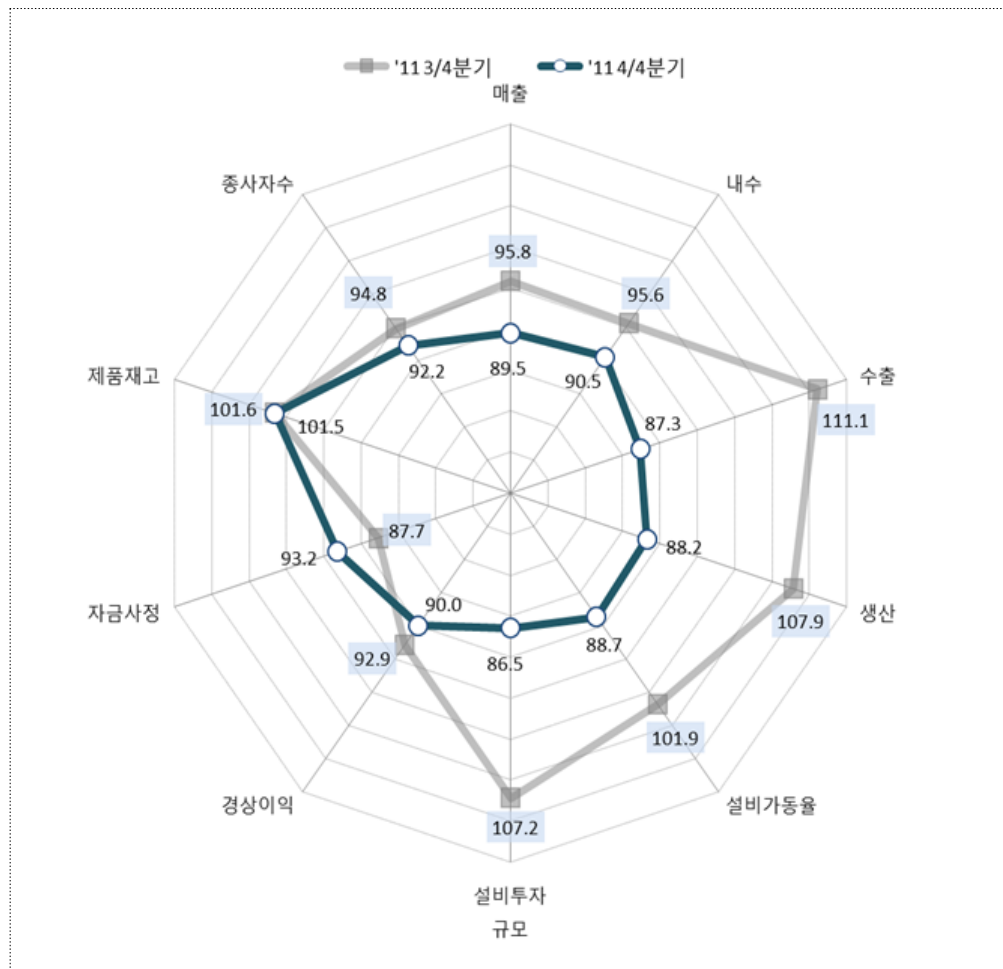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의 산업별 업황실적지수

- 「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24.1p 하락한 82.7을 기록한 반면,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7.6p 상승한 99.3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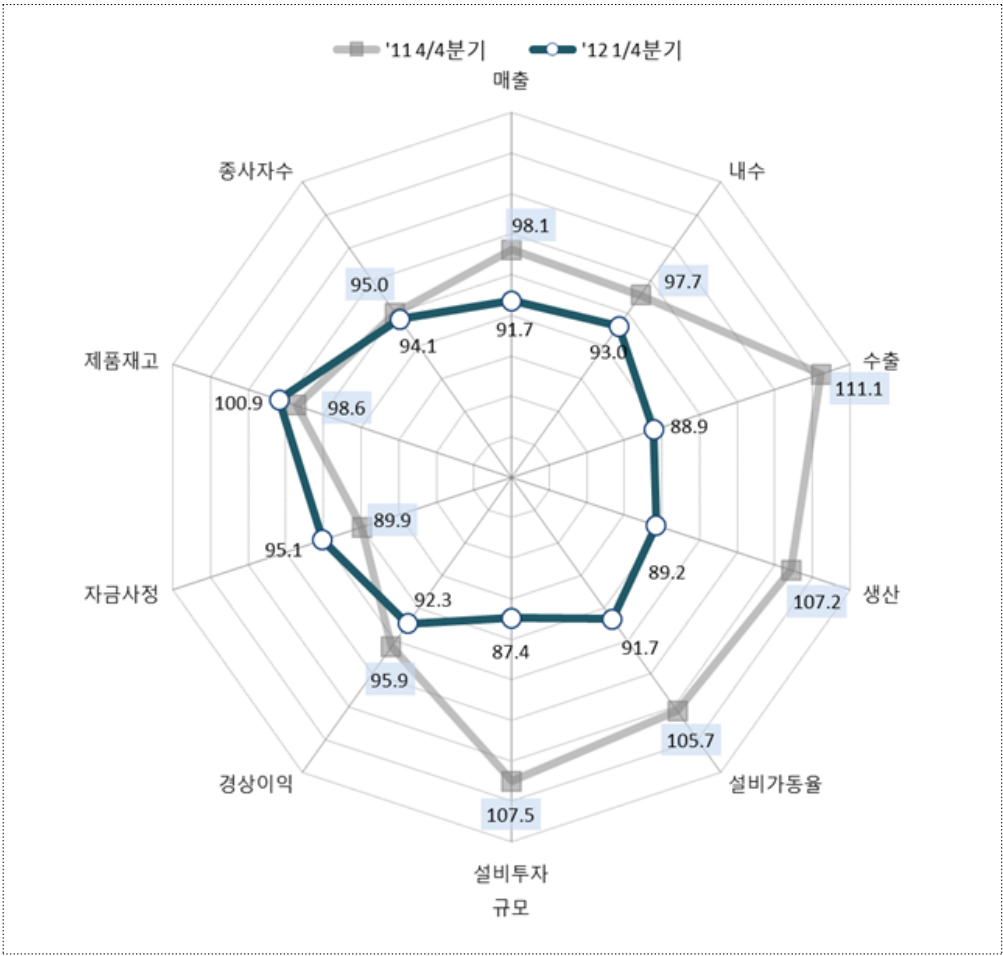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산업별 업황전망지수

- 서울소재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대부분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
 - 2011년 3/4분기 기준치(100)를 상회하던 수출, 생산, 설비가동률, 설비투자 규모가 모두 하락하여 기준치를 하회
 - 2011년 기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던 수출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 「내수실적지수」, 「매출실적지수」, 「경상이익지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5.1p, 6.3p, 2.9p 하락하여 내수부진과 함께 기업 채산성 악화



[그림 13]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 지수

- 2012년 1/4분기 부문별 전망에서도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조사
 - 내수 전망은 전분기대비 4.7p 하락한 93.0으로 내수 부진이 매출과 생산부진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수출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 전망이 다시 하락하여 2012년 상반기에도 서울의 고용 여건 개선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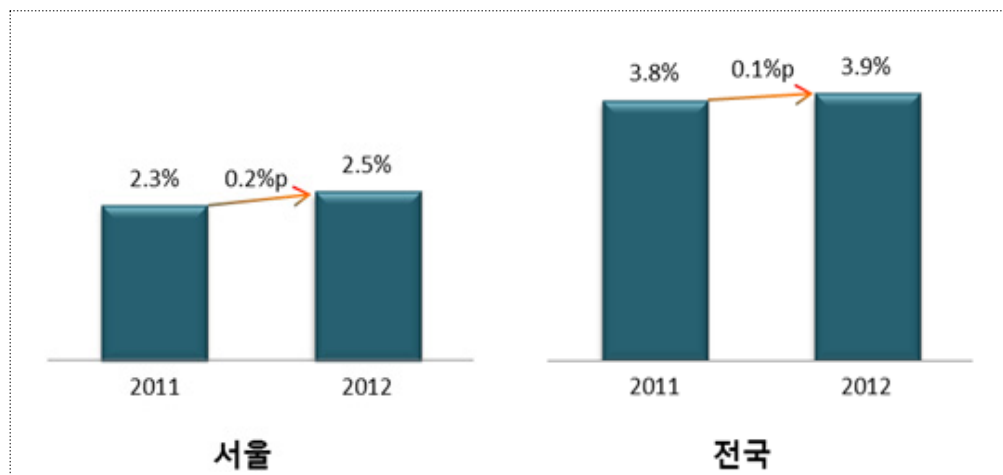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 지수

Ⅲ. 2012년 서울경제 전망

2012년에도 서울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 서울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2011년과 비슷한 2%대 전망
 - 서울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2.5%로 전년대비 0.2%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국의 성장률 3.9%보다는 크게 하회
 -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2%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서울의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 노력 필요
 - 민간소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내수의 회복세 둔화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
 - 기업 체감경기 조사 결과 업황전망지수가 하락하여 2012년 상반기 서울 경제성장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서울의 경제성장률 성장폭(0.2%p)은 전국(0.1%p)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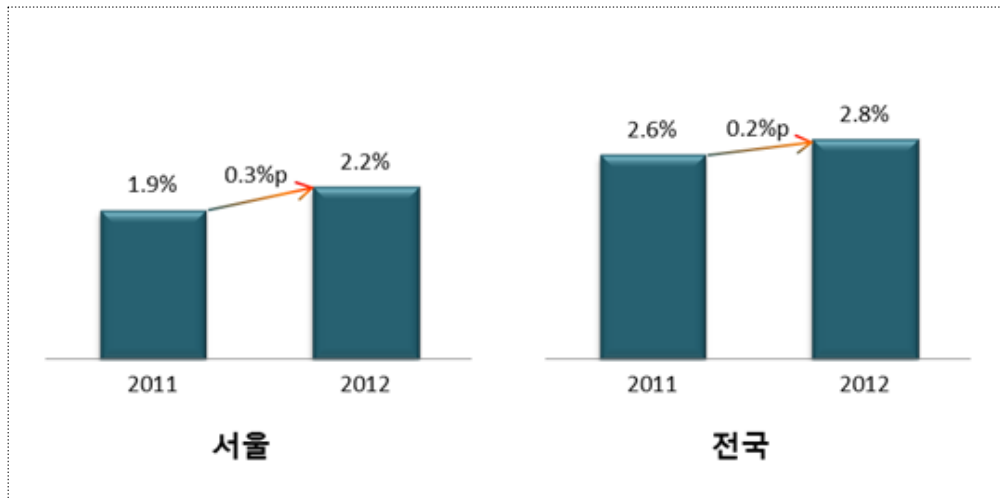


주 : 서울은 서울시장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IMF(2011. 11월), KDI(2011. 11월), SERI(2011. 12월) 전망치 평균

[그림 15] 2012년 서울 및 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서울의 2012년 민간소비지출은 2.2% 증가 전망

- 서울의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간소비지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4/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가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소비 확대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서울의 민간소비지출 증가폭은 0.3%p로 전국의 0.2%p보다 0.1%p 높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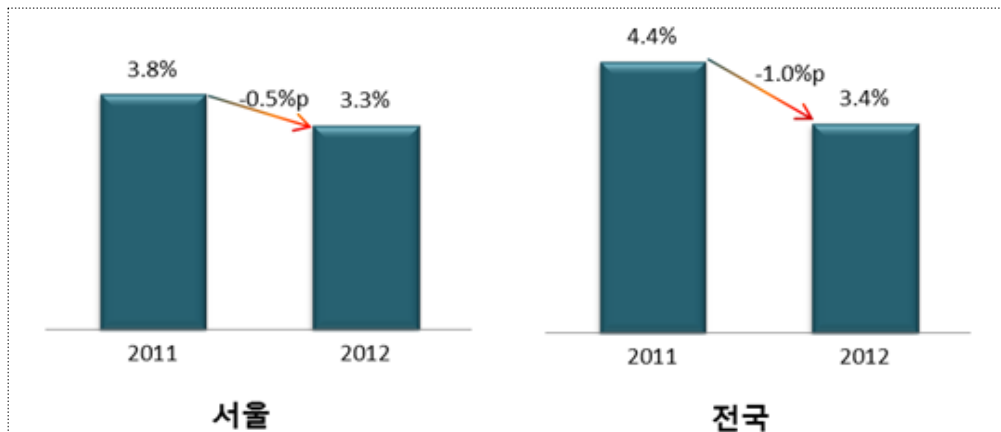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IMF(2011. 11월), KDI(2011. 11월), SERI(2011. 12월) 전망치 평균

[그림 16] 2012년 서울 및 전국의 소비 전망

□ 서울의 2012년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3.3% 전망

- 2012년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2011년 3.8%보다 0.5%p 낮은 3.3% 전망
-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국과 비슷한 수준인 3%대 초반에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

- 하지만 공공서비스요금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개인서비스 부문 역시 가격인상 요인이 많아 물가상승 압력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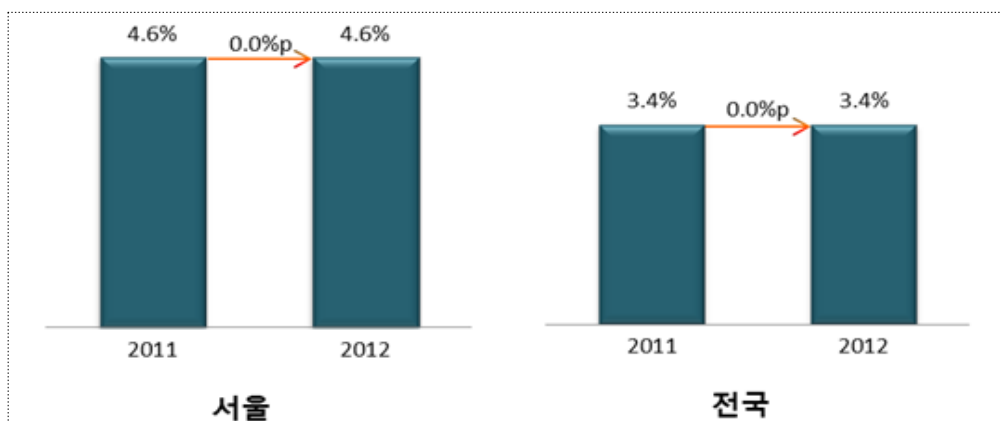


주 : 서울은 서울시장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KDI(2011. 11월), SERI(2011. 12월) 전망치 평균

[그림 17] 2012년 서울 및 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

- 2012년 서울의 실업률은 4.6%로 2011년에 이어 포함세

- 최근 취업자수가 소폭 증가하는 등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2012년 서울의 실업률은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주 : 서울은 서울시장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IMF(2011. 11월), KDI(2011. 11월), SERI(2011. 12월) 전망치 평균

[그림 18] 2012년 서울 및 전국의 실업률 전망

Ⅳ. 시사점 및 정책제안

2012년 서울의 경기둔화 전망에 따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고려 필요

-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서울의 전반적인 체감경기 역시 부진한 상황으로 2012년 서울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최근 3년간 서울의 연간 성장률이 평균 2.8%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경제성장 전망치 2.5%는 지표상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고, 대내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표상 경제성장률과 실질 체감경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
 -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및 경기전망이 부정적이고,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향후 체감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2011년 서울의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은 다소 긍정적이지만 2012년 1/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고용 전망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빠른 고용여건 개선은 어려울 전망
 - 따라서 서울시는 경제성장률 둔화가 체감경기 악화와 향후 성장동력 약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둘 필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 필요

- 2012년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서울시의 재정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절 필요

- 단기적으로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지원 사업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 필요
 - 서울의 고용여건은 청년 취업 증가 등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책 내실화 필요
 - 또한 신규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지출의 합리화 추구 필요
-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 유지
-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과 동시에 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필요
 - 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굴을 위해 지원방안 체계화 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 필요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부록 : 2011년 4/4분기 주요 조사 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0년 4/4분기	101.0	92.5	111.2	85.3	115.6	100.3	104.5
2011년 1/4분기	92.2	90.8	108.7	66.9	101.5	93.1	100.8
2011년 2/4분기	91.3	89.7	106.2	68.0	98.4	94.4	98.5
2011년 3/4분기	83.4	85.0	103.2	50.4	87.1	91.4	92.4
2011년 4/4분기	86.0	85.0	100.5	57.1	92.2	95.4	93.2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0년 4/4분기	95.3	100.5	98.4	107.8	147.7
2011년 1/4분기	95.0	99.8	101.8	100.6	154.5
2011년 2/4분기	94.2	99.8	101.1	97.2	150.5
2011년 3/4분기	91.7	98.5	95.6	86.4	155.4
2011년 4/4분기	91.3	98.1	94.0	89.3	147.3

<표 3> 서울지역 기업 경기 지수

구 분	실적					전망				
	2010년 4/4분기	2011년 1/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1년 1/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1/4분기
매출	90.6	98.6	100.3	95.8	89.5	90.3	102.0	104.1	98.1	91.7
내수	90.9	98.6	100.1	95.6	90.5	90.5	102.3	103.9	97.7	93.0
수출	93.6	97.5	89.3	111.1	87.3	102.1	103.2	95.3	111.1	88.9
생산	94.3	96.7	94.7	107.9	88.2	90.3	104.5	102.1	107.2	89.2
설비가동률	90.5	95.1	96.3	101.9	88.7	90.8	98.8	103.8	105.7	91.7
설비투자규모	93.7	93.1	99.7	107.2	86.5	85.9	93.4	97.7	107.5	87.4
경상이익	86.5	107.1	100.6	92.9	90.0	89.8	109.7	102.7	95.9	92.3
자금사정	86.2	101.2	93.6	87.7	93.2	93.0	104.5	97.2	89.9	95.1
제품재고	108.0	98.7	95.6	101.6	101.5	94.6	95.9	99.3	98.6	100.9
종사자수	91.5	93.0	97.0	94.8	92.2	88.4	96.1	98.6	95.0	94.1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분기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2011년 4/4분기 조사 시점은 2011년 11월 중순).